

#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도내 시·군 경계 허문다

도교육청,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 26일까지 희망 학교 신청접수  
교육장간 동의 통해 공동학구 설정... 작은학교로 주소이전 없이 전·입학 허용

농어촌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의 시·군 경계를 허물 예정이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울림학교' 유형을 재구조화하고 공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어울림학교'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부터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 교육과정 협력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개편하고, 150개교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먼저 인근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입학할 수 있는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는 농어촌 작은

학교 학생 유입에 긍정적 효과를 주기 위한 것으로, 2023년 현재 70개 초등학교가 운영 중이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되는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는 교육장간 동의를 통해 시·군 경계를 넘어 공동통학구를 설정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주소이전 없이 전·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큰 학교 1곳에서 작은학교 여러 곳으로의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지역적 한계를 넘어 학생 유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과밀학교 해소 및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교육과정협력형'은 인근 작은 학교 간 협력체계를 갖춰 마을 교

육자원 등을 적극 활용해 지역 및 학교 여건과 특색에 맞는 어울림학교 창의적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게 된다.  
한편 2024년 어울림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현재는 시·군 내에서만 전·입학 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시·군간 경계를 허물어 광역형 공동통학구 어울림학교를 운영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작은 학교의 교육 환경을 보다 향상시켜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일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서 '2023 사제동행 청소년 금연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 금연 실천문화, 학생들이 주도

도교육청, 사제동행 청소년 금연서포터즈 발대식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3일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서 '2023 사제동행 청소년 금연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 주도의 금연 실천 문화를 조성하고자 사제동행 청소년 금연서포터즈 활동 선포와 함께 흡연 예방·금연 캠페인 활동 연대기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북 청소년 금연서포터즈 지도교사와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이를 통해 흡연하는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금연 실천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자연스럽게 금연 실천 분위기가 유도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금연 서포터즈 팀별 플래시몹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냈다.  
이날 발대식에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평생 금연 실천을 다짐하고, 청소년 흡연 예방·금연 캠페인 활동에 나선 학생들을 격려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청소년 금연서포터즈 활동을 위해 참여해 준 청소년 금연서포터즈 지도교사와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이를 통해 흡연하는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금연 실천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자연스럽게 금연 실천 분위기가 유도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개방적 사고로 다름을 인정해야"

김대식 전북국제교류센터장  
우석대에서 유레카초청강의

우석대학교의 대표적인 교양 강자인 유레카초청강의에 김대식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이 연단에 올라 세계정세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들려줬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일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열린 유레카초청강의에서 김대식 센터장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 변화와 높아진 위상을 강조하며, 전북의 국제경쟁력을 소개했다.  
이날 김대식 센터장은 "더 큰 세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관견(管見)의 한계를 이겨내야 한다"며 "개방적 사고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대식 센터장은 제14회 주요민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전라남도청 국제관계대사, 주카자흐스탄대한국대사관 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2월 제3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센터장으로 부임했다.  
/정은성 기자

## 방산인재 양성, 기업과 손 잡아

전북대, 방산핵심기업 한화시스템과 협약 체결  
내년 방위산업학과 설립·학생 취업 연계 협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방위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한화시스템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계약학과인 방위산업학과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대는 이 학과를 통한 인재양성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2일 국내 방위산업 분야의 핵심 기업 중 하나인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과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8일 지역 방위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인 다산기공(주)(대표이사 김병곤), (주)테크카본(대표이사 우종인), 비나텍(주)(대표이사 성도경) 등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한화시스템은 내년 신설될 전북대 방위산업학과 설립에 적극 협력하고, 학과 설립 후에는 학생 취업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신설될 전북대 방위산업학과와 긴밀히 연대해 현장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기업 관계자가 학생을 교육하는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 가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국내 방위산업 분야



를 이끄는 글로벌 기업인 한화시스템과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를 우리대학이 공급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시스템도 확립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글로벌대학으로 나아가는 우리대학에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과도 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정은성 기자

### 국토부 주관 2개 한옥과정 모두 선정

전북대,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한옥시공관리자과정 등

전북대학교 한옥사업단(단장 남해경)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한옥시공관리자과정'에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계속 선정돼 지금까지 300여명의 한옥설계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두 개 과정 모두를 실시하는 기관이 됐으며, 이를 통해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양질의 한옥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한옥설계 전문인력양성과정은 건축 전문가인 건축사와 예비건축사를 대상으로 한옥설계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초반(6개월)과 심화반(6개월)을 운영한다. 한옥 시공관리자과정은 건축사와 한옥 시공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중견 한옥시공 관리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은 전북대 전주캠퍼스의 한옥

국토부 고위직 공무원 한옥교육 실습 모습.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강의실인 심전화당에서 이론 수업을 실습은 국내 최고 시설과 장비를 갖춘 고창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전북대 건축공학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한옥 관련 유명 교수진이 참여하고, 인간문화재 제74호인 최기영 대목장을 석좌교수로 임명해 특화교육도 실시된다.  
특히 전북대는 시공 실습으로 정자 건축을 한 뒤 이를 전북대 본부

정원과 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고창 이진중등학교 등 공공기관 등에 기부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선례를 남겼다.  
이러한 교육의 힘을 기반으로 전북대는 알제리아와 베트남, 필리핀 등에 한옥을 수출하기도 했으며, 현재 10여 개 나라에 20여 개 한옥 수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 국립대 적립금 예산과목 신설·안전한 연구환경 구축 제안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정기회의서

국가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일 오후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2023년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제3차 정기회의에서 △국립대학 적립금 예산과목 신설 건의 △대학의 안전한 연구환경 구축 제안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 등을 위한 현안을 놓고 협의했다.  
특히 총장들은 거점국립대학병원 이

2023년도 제3차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국립대학교병원 이사장협의회

사장으로서 카이스트, 포스텍의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거점국립대학병원과 의생명과

학 학문분야의 연계를 통해 의과과 학자 집중 양성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또한 국민건강 증진 수준 높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거점국립대학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10개 국가 거점국립대학들은 지난 1~2일 이틀 동안 충남대에서 회원대학 총장단과 교직원·학생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제3차 행사도 함께 열고 국가거점 국립대학 간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정은성 기자

### 전북교육 정책 방향 이해·역량강화 연수

도교육청, 도내 행정실장 110여명 대상  
서 교육감, 작은학교 살리기 등 정책 설명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일 군산 에이브 컨벤션에서 도내 사학기관 행정(법인)실장 11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교육 정책 방향 이해와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사학기관 행정실장과

은학교 살리기 △기초화력 책임제 △교과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등 전북교육의 주요 정책 설명을 설명했다. 이어 미래지식교육원 김영모 대표의 '청렴 및 갑질예방교육, 동력여자대학교 탁현규 교사의 인문학에서 찾는 지혜' 등의 특강이 이어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사학은 전북교육 생두머리의 든든한 한 축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면서 "차별없는 공교육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사학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와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은성 기자

###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미래인재상 이해

도교육청, 도내 중학교 교장 대상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일 전주대학교 예술관 J아트홀에서 '2023년 중등 관리자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내 중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미래인재상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학교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해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의봄' 송인수 공동대표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는 진로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교육의봄'은 출신학교 차별없는 기업의 채용 문화를 확산해 우리 교육에 봄을 이끔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번 강연을 통해 송 대표는 최근 기업의 변화에 따라 학교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미래 인재상을 제시하고, 이에 맞춰 진로교육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한독경상학회 학술대회

전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는 한독경상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2일 한독경상학회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독경상학회는 한국과 독일 간의 학술 분야 또는 기타 제반 문화 분야의 연구 활동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의 교류를 목적으로 1978년에 창립돼 45년의 정통성을 자랑하고 있는 학회다.  
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창원 교수(전주대 물류무역학과)는 개회사에서 "이번 하계학술대회를 통해 학문적인 업적과 실무적인 경험을 결합해 학계와 산업 현장 간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는 장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 전주대 산업경영연구소 이경재 소장(경영대학장)은 시, 그림, 음악 등을 결합해 인문학과 함께하는 광역적인 환영사로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